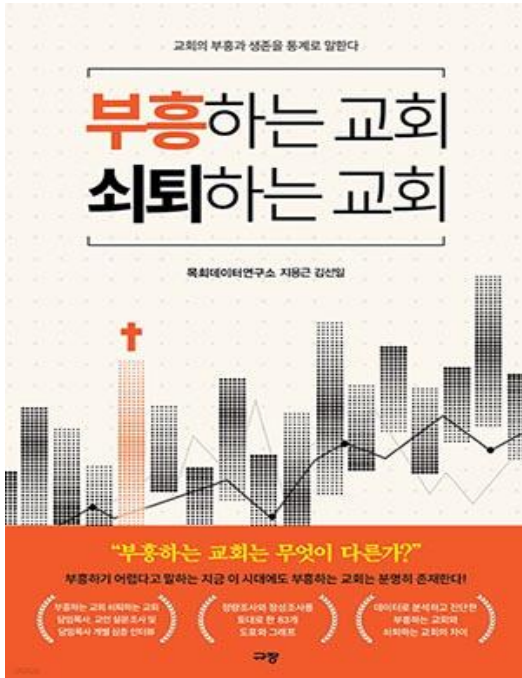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의 성경적 제직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부흥’에 대해 “교회의 본질이 새롭게 살아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깊어지는 질적 성숙”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성장이나 분위기 고조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전면적인 회개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구속사의 절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교회들이 실제로 부흥하고, 무엇을 다르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자,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전국의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교인 총 1,32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으로

▲활발한 사역 참여 ▲미래지향성 ▲대위임령(땅끝 복음전도)에 대한 헌신 ▲소그룹과 돌봄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통적 특징이 나타났다.

-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는 책임 회피, 갈등, 영적 침체, 소통 단절 등 공통된 징후가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이 목회자 중심이 아닌 성도 참여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소그룹이 실제 돌봄과 연결의 통로로 강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또 봉사자, 세례자 수가 증가하고, 특히 3040 세대와 다음세대 수가 증가하는 특징이 뚜렷했다.
- 복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와 몰입도가 높았으며, 전 교회적으로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목회자는 통제적 리더보다는 신뢰받는 동반자로 인식되고, 교인들은 교회를 단지 출석하는 공간이 아닌 함께 세우는 공동체로 인식했다.
-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구조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사역은 대부분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교인들은 수동적인 참여자에 머물렀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체로 멈춰 있었으며, 다음세대 사역도 축소되거나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 복음에 대한 관심적 시야 역시 약화된 모습이 나타났으며, 공동체 내부에서는 갈등이나 무관심이 만연했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체념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았다. 목회자, 성도 모두에게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관찰됐고, 전체적으로 ‘조직은 존재하나 생명력은 미약한’ 구조적 쇠퇴가 두드러졌다.

* 부흥의 네 가지 기둥: * 사역 참여 / 3040 / 대위임령 / 공동체

첫째는 “부흥하는 교회에는 사역 참여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방관자에서 참여자, 동역자로 전환이 부흥의 동력이 되고 사역의 프로그램 확대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실제 참여율을 높였다.

나아가 목회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했다. 30 명 미만의 부흥하는 교회의 평신도 사역 활성화율은 56%인 데 반해 쇠퇴하는 교회는 단 7%였으며, 500 명 이상의 큰 교회라도 쇠퇴하는 교회는 33%에 머물렀다.

둘째는 ‘미래지향적 실천’으로 허리 세대인 3040 세대가 다음세대 부흥을 견인하고 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주요 동력임을 확인했다. 다음세대 역시 그들의 부모인 3040 세대와 밀접했으며, 이를 위해 전 연령대에 아우르는 자녀 돌봄 공간, 연령별 전담 교역자, 맞춤형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회학교’ 부서는 30 명 미만의 작은 교회라도 부흥하는 교회는 40%가 운영했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8.8%만이 운영했다.

셋째는 ‘대위임령(땅끝 복음전도)에 헌신’으로, 단순한 ‘성도 수’가 아닌 ‘세례자 수’의 증가는 교인 수 증가와 상관관계가 세 번째로 높았다. 이들 교회는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전도의 실천이 이어져 지속적으로 새 생명을 품었으며, 새신자가 정착·헌신하기 위한 교육이 체계적이었다. 선교, 구제, 지역 봉사 등 외부 예산 지출 비중도 높았다.

넷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로 분석했다. 성도 간 신앙 나눔과 돌봄이 가능한 소그룹이 활발히 운영되는 교회는 건강하고 강했으며 새로운 사역과 제도, 변화에 대해 성도들이 열린 태도를 보였다.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의지도 컸다.

지용근 대표는 “부흥은 지금도 가능하다. 단지 수적 증가가 아닌, 복음이 온 세대에 선포되고, 제자가 양육되며,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다음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자라나는 과정이다. 그 시작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변화 지향적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전했다.

* 우리의 영적전쟁은 옆 교회가 아니라 _____이다!

* _____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라! (온 가족, 온 세대)

* 젊은세대와 다음세대를 성장케 하는 핵심 요소: _____ 세대/리더가 있어야 한다

주 예수 교회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명의 제직

1. 주 예수교회의 비전과 사명

주 제 비 전	<u>* 사명 표어: 하나님과 이웃을 온세대가 함께 섬기는 선교적 세대, 선교적 교회</u> <u>* 사역 비전: 선교적 All 교회 (Mission-All Church)</u> *선교적(Missional)이란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은 교회의 부분적 사역이 아닌 교회의 전체(Mission All) 사역이며, 선교적 삶, 가정, 일터의 사역으로 확장 됨 * 아래 세가지의 선교적 All-Church 사역들을 통해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일터, 선교적 시니어, 선교적 다음세대, 선교적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감	
비 전 내 용	선교적 All- 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	1) 예배 말씀 사역 (예배, 기도회, 성경공부, 목장 등) 2) 체계적인 리더/양육 훈련 : 새가족반 - > 세례반 - > 양육 훈련반 - > 리더 훈련반 - > 직분자 훈련반 3) 온라인과 현장을 연결하여 확장해 가는 사역 4) 세대와 세대를 넘어, KM 과 EM 을 연합하는 사역들 5) 온세대 예배, 온세대 기도회 등 세대가 하나가 되는 교회
	선교적 All- Life (공동체와 개인, 가정)	1) 개인신앙과 가정신앙 회복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2) 성경통독과 묵상을 통한 매일 개인신앙 3) 가정신앙, 가정목장, 가정예배 4) 사순절 특별 신앙 캠페인
	선교적 All- Love (하나님과 이웃)	1) 선교적 세대,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중점 사역 (MGF, 선교 등) 2) 하나님 사랑(교회의 본질)과 이웃 사랑(교회의 확장)을 연결하는 사역 3) 우리교회를 넘어 지역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교회와 복음의 사명 4) 한인 이민교회 정체성 과 뿌리 찾기 사역 : “이민자(IMG)씨를 찾아서” - 이민교회의 역사, 미국내 이민교회 사역 발전

2. 교회의 기초: 예배와 말씀, 기도 (예배와 기도회의 차별화)

- 1) 주일말씀: 영성 주제설교 (교가중, 성령충만의 교회 등)
- 2) 수요말씀: 성경 강해, 성경 전체그림 그리기
- 3) 토요새벽 말씀 & 매일큐티: 묵상, 통독 성경 잘 읽기 훈련
- 4)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 풍찬열기 금요기도회, 온세대 “함께” 연합기도회

3. 교회의 비전 사역

- 1) All-Line (2021), All-Life (2022), All-Love (2023) 사역을 이어가며,

GENERATION TO GENERATION 의 교회에서 **GENERATION WITH GENERATION**

2024 년부터 온세대 **All-Generation** 의 교회 “함께 세대”를 이루어 감

- 2) 열매, 나무, 뿌리 세대로 세대와 세대가 함께 하는 온세대 목장
- 3) 선교적 교회, 선교적 온세대의 **MGF** 사역으로 발전
- 4) 원팀사역의 사역원과 팀사역으로 교회의 사역을 정착
- 5) 선교적 다음세대가 정착되고, 확장되며 리더십을 세우는 한해 (**MGF** 캠프, 장학금, 봉사상)
- 6) 주 예수 제자훈련을 정착시키고, 교회 전체에 확장하는 한해 (제자훈련 => 일대일)

4. 영적 배움의 시스템과 양육의 체계화

- 1) 2022 년~2023 년: 제직을 중심으로 주 예수 제자훈련
- 2) 2024 년 이후 일대일 반 확장:

① “주예수의 사람” 일대일 리더 이끄미 훈련 및 일대일 반 확립

② “풍성한 삶의 기초” 일대일 리더훈련 및 일대일반으로 발전

3) 주중 성경공부, 연령별 성경공부, 새가족반, 세례반

4) 제직훈련, 세미나, 예배 훈련, 사역 훈련

5. 원팀사역의 시스템과 역할

1) 원팀사역을 중심으로 한 당회와 안수집사회의 소통, 정기적인 모임

2)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1 인 1 사역의 원팀사역으로 리더 양성, 신앙 성숙

3) 장로: 교회 전반적인 리더십 역할, 영적 돌봄과 인도

4) 안수집사: 각 팀의 리더 역할, 교회의 제반살림을 운영

5) 성도: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과 신앙발전의 사역 참여

6) 의논과 안건 제시의 회의를 넘어 실제적인 소통과 사역 중심의 시스템

7) 당회와 안수집사회는 교회의 영적, 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기관이며, 원팀사역은

구체적인 사역들을 나누고 집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스템입니다.

8) 타 교회에서 오신 안수제직은 1 년 후 당회 임명을 거쳐 교회 리더십 동역 (이전 전례 참고)

6. 온세대 All-Generation All-Life 소그룹 목장

1) All- Life 소그룹 목장 시스템을 각 세대에 따라 목장을 구성함

2) 세대별 목장 - 열매, 나무, 뿌리세대

3) 2026 년도에는 여러 방법으로 목장 시스템을 시도함 (세대통합, 전도목장 등)

7. All-Love 지역 선교를 이어가고, 해외 선교의 지경을 넓힘

1) MGF 와 선교 사역원의 사역을 분리하고, 정리함

① MGF 는 다음세대가 리더십을 세우는 사역으로 방향을 정함

② 온세대가 함께 하는 선교로 발전함

2) 해외 선교 계획 - 도미니카와 더불어 더 많은 해외 선교를 정착함

7. 우리 교회의 세 기둥



* 오늘 배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질문

- 1)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새롭게 배우거나 마음에 남는 것을 되새겨 봅니다.
- 2) 우리교회의 비전과 사명 중에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역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 3) 6 주간의 제직훈련 중에 감사와 감동이 되었던 것을 고백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예수의 제직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